

자동차 화학소재 환경친화 전환

일본, 환경친화제품 수요 증가 ... 재료부문까지 무한경쟁 시대

일본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에 대한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더욱 환경친화적으로, 더욱 안전한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세계를 재패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에 관계된 폭넓은 재료, 부품 메이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인식으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생존에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코스트 절감이 가능하고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량화 재료 및 강성재료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활용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료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재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을 배려한 재활용성 추구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게 됐는데, 철강 메이커들은 철계 재료만큼 재활용에 적합한 재료는 없다는 입장이고, 알루미늄 메이커도 재활용성을 추구함으로써 알루미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플라스틱 메이커는 기능, 물성, 가공성에서 재활용이라면 플라스틱이 최적이라며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더욱 강조되는 것은 글로벌 조달 문제로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거점을 미국, 유럽, 일본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통용되는 재료의 조달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일본과 해외 생산비율이 역전됐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아시아, 중국에서는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경쟁과열 영향이 재료부문에 미치지 시작해 끝없는 개발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08>